

# 건강과 자연을 입는다



earth 커플 티셔츠



누에고치 단백질 바지



'5%의 에너지' 티셔츠



유기농 면 티셔츠

## 불황속에 뜨는 '에코패션'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패션'이 불황 속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녹색세대'가 불황기 불투명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패션업계에는 '녹색 바람'이 더욱 거세다. '예쁜 것'에만 치중하며 유행을 주도했던 유명 패션 업체들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등 진화된 제품으로 소비자를 찾고 있다.

## 유기농 청바지·옥수수 속옷·그린백... 의류업계 천연소재 의류 앞다퉈 출시

◇유기농 등 친환경 소재 열풍=최근 피부 자극이 없는 유기농(오가닉·Organic) 면으로 만든 옷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오가닉 면은 일반 면과는 달리 재배과정에서 3년 이상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한 것이다.

유기농 면과 더불어 대나무, 탁나무, 콩, 옥수수, 참숯 등 다양한 천연섬유 소재들이 새롭게 '오가닉 라인'을 형성하며, 성인 의류까지 확대되고 있다. 코오롱스포츠 올 신상품으로 '대나무 스관 바지'를 선보였다. 입었을 때 시원한 청량감을 주면서 정전기를 막아준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도 땀을 빨리 흡수하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는 '대나무 팬츠'를 내놓았다.

'다스골프'는 최근 친환경 소재인 옥수수 원사를 사용한 조끼제품을 출시했다. 남성복 '타운젠트'도 대나무 소재를 사용해 천연 향균과 향취 기능을 높인 바지 제품을 선보였다.

코오롱 패션의 '맨스타'는 은나노 기술을 사용해 항균작용은 물론 혈액순환촉진에도 도움을 주는 은사 라인업 기법으로 실버플러스 정장과 에어퀵 슈트를 출시했다. 이와 더불어 LG패션의 '마에스트로'는 대나무 섬유로 만든 재킷을 내놓아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빈폴골프'는 누에고치 추출 소재를 활용해 피부에 안전한 단백질 바지를 내놨다.

◇민감한 피부를 위한 오가닉 속옷=민감한 피부를 보호하고자 이너웨어 업계에서도 오가닉 열풍이 거세다.

'보디가드'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알로에 가공 속옷과 천연 항균 효과가 있는 은행 환균 속옷을 내놓았고, 알레르기 및 민감성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을 위한 '오가닉 스토리' 제품도 판매 중이다.

'비비안' 역시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

출한 '텐셀' 섬유로 여성용 러닝셔츠를, 너도밤나무 섬유 '모달'을 이용한 남성용 사각팬티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트라이엄프' '비너스' '비와이씨' 등에서도 참숯, 키토산, 알로에, 황토, 콩과 같은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을 선보이며, '오가닉 패션'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메시지로 소통하다=골프의류 '먼싱웨어'는 올 3월 '세이프 더 펠린' 문구가 새겨진 유기농 소재 티셔츠를 선보였다.

여성 의류 '탱커스'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earth 커플 티셔츠 시리즈'를 내놓았다. 스포츠 브랜드 '르코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모티브로 한 '바이시클 파워' 티셔츠 시리즈를 내놓았다.

진 캐주얼 브랜드 '에비수'에서도 자연 보호를 주제로 출시한 '유니크 내추럴 티셔츠' 시리즈를 출시했다. 티셔츠에는 자연을 지키자는 의미의 'Keep the Nature Alive!'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캐주얼 브랜드 '도크'는 '지구'를 위한 5%의 에너지 절약이라는 주제로 기부캠페인을 열고 '5%의 에너지' 그래픽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에코패션=에콜로지 패션(Ecology Fashion)의 줄임말로 '생태계를 배려한 패션'을 뜻한다. 1980년대 말 밀라노 등지에서 모피코트의 생태계 파괴를 비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에코패션은 단순히 생태계 보호 차원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1990년 '추동 밀라노 컬렉션'에서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인조 모피가 무대에 오르면서 에코패션이 패션계의 한 흐름이 됐다.



21일 오후 롯데백화점 광주점 한 의류매장에서 친환경 유기농 소재를 사용한 오가닉(Organic) 코튼 티셔츠를 선보였다. 이 티셔츠는 3년 이상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토양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면을 소재로 사용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식물성 '친환경 세제' 쏟아진다

## 대기업들 자몽·유자 등 원료 제품 잇달아 출시

가치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세제가 인기다. 대기업들 웰빙 트렌드에 맞는 친환경 세제제품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유한양행의 '아름다운 세탁세제'는 프리미엄 액체 성분 세제로 업계 최초로 무형광증백제, 무색소, 무향의 일명 '3무 콘셉트'를 내세웠다.

형광증백제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발암 물질이라는 논란으로 현재 금지되어 있는 물질이다.

또 형광증백제와 인공색소 인공 향을 첨가하지 않은 동시에 피부보호를 위한 달맞이꽃종자유가 함유되어 있어 친환경적이고 인체 친화적인 성격을 강화했다.

이밖에 효소시스템을 통해 세척력을 강화, 세탁 후 의류에 남는 세제찌꺼기 문제를 해결했으며 더불어 실내 건조 시 자주 발생하는 눅눅한 냄새와 세균 번식 억제 효과가 있는 천연 자몽 추출물을 주입, 향균 성능을 강화했다.

엘지생활건강의 친환경 브랜드 '빌러



유한양행 '아름다운 세탁세제'



엘지생활건강 '빌러쓰는 지구'

쓰는 지구' 역시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 치약·비누·세탁세제·주방세제 등 전 제품은 형광증백제, 인산, 색소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성분을 쓰지 않고, 식물성 성분을 사용했다. 또 재생지를 활용한 상자로 패키지를 포장하고 제품설명서도 롱기름으로 인쇄하는 등 원료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친환경을 도입했다.

피죤의 액체 세제 '엑츠' 또한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이다. 순식물성 원료인 자몽과 유자, 유칼립투스를 원료로 사용한 이 제품은 피부에 자극이 없어 안전하다. 액체 성분인 만큼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아

형광성이 뛰어나고 용해성이 좋아 차가운 물에서도 쉽게 녹는다. 그만큼 가정 내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토일리는 친환경 화장실 전용 세정제 '프라임 엑센트'와 '프라임멀티'를 출시했다. 염산 위주인 기존 세정제와 달리 감귤과 야자 추출물 등 식물성 소재가 함유된 친환경 세정제로 맨손으로 청소가 가능해 세제가 피부에 직접 닿아도 자극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만민국 단 하나의 모방할 수 없는**  
**특허 기술, 척추 건강을 위한**  
**의자 선택 - 바우인닥터**

**바우인닥터는 올바른 척추 보호 뿐만 아니라 이미 흐트러진 체형도 바로 잡아줍니다.**

**하루의 절반은 앉아있는 사람 바우인닥터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판매처: 남평주사거리 안보기구 062)225-5100  
 www.bauindokta.com

**최상의 스크린 골프클럽이**  
**당신을 "VVIP"로 모십니다!!**

SGJ 서광주스크린골프클럽  
 T. 067) 654-0742  
 대표번호 010-3006-0050